

## 하림 2001대구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자사제품홍보전개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지난 6월 7일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제품홍보를 가졌다.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1천200평)에서 개최된 이번 2001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는 7개국 105개사가 참가했으며 △식품(Food) △식품가공기(Food Processing Machinery) △포장기기(Food Franchisee) △호텔·주방용품 및 기기(Hotel Kitchen System) 등이 전시됐다.

## (주)마니커 판매본부 성남분당으로 이전 홍보실은 용인본사로

(주)마니커(대표 한형석) 판매본부가 서울 양재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상대원동으로 이전한다.

554평의 대지위에 지상 3층 건평 241평의 신사옥을 건립, 이전하는 마니커 판매본부는 공사가 마무리돼 지난 9일 입주를 완료했다. 또한 이번에 새로 건립된 신사옥에는 마니커 판매본부외에 계우식품, 마니커농산, 우리집 양념통닭 등 관계사들도 함께 입주하게 된다.

한편 판매본부와 함께 양재동 본부에 입주해있던 홍보실은 용인 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새로 이전한 성남 신사옥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상대원동 513-6이며 전화번호는 양재동과 같은 02)577 - 6262이다.

## 체리부로식품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지난달 28일자

(주)체리부로식품(대표 김인식)이 지난달 28일자로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받았다.

농림부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사(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결과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체리부로식품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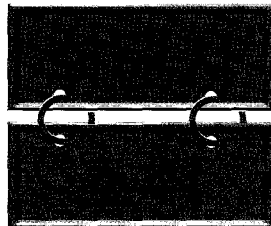
도계장 HACCP는 닭고기의 도축, 가공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오염등을 사전에 차단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로 체리부로식품의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은 본회회원사 중 5번

째이다. 이로써 체리부로식품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외 이미지와 대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 2001-3차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지난달 30 충남유성에서

2001년 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소속 생산책임자 회의가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 서라벌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육계질병 및 육계수급에 대한 정보교환 △계약사육농가에 관한사항등이 중점 논의됐다.

육계질병 및 수급과 관련 참석자들은 현재 육계질병발생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부화장이 100%가동된 관계로 복(伏)경기 시점에는 출하물량이 급격히 늘어



회원사 소식

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원농장을 인수한 체리부로식품은 경영이 정상화되는대로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병아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인 닭고기 수출입업자 조찬 간담회 개최  
8일 팔레스호텔**

지난 6일 내한, 마니커, 하림, 화인코리아 등을 둘러본 일본 닭고기 수출입업자인 마쓰다 브로일러(주) 마쓰다사장 과 그 일행과의 간담회가 8일 서울 서초동 소재 팔레스호텔 「다봉」실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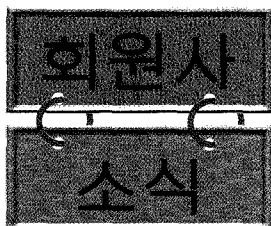
마쓰다사장을 비롯 일본 전국식조신문 기요시 다카꾸 기요시 차장, 김강식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회장, 정동홍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본회 황인옥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쓰다 사장 및 다카꾸 차장은 국내 닭고기 생산 업체를 방문한 결과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한국의 닭고기 생산시설이 선진화돼 있다며 한국산 닭고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한국 닭고기가 일본시장에서 유리한 점은 거리가 가까워 일본 국내산 닭고기와 같이 신선한 상품을 단시일(1~2일)내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쓰다 사장은 『한국산 닭고기가 일본시장에 성공리에 진출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그 지적사항으로 있다며 한국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 닭고기 소비시장은 미국을 비롯, 중국, 브라질, 태국 등 많은 국가에서 닭고기가 수입돼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도 한국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산 닭고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전국식조조신문 다카꾸차장도 『일본도 중국산 가금육이 가금인푸루엔자로 인해 지난 7일자로 금수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당장 한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며 『한국산 닭고기에 대한 충분한 대일본 홍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부 정동홍 경영과장은 『한국산 닭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일본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들도 한국산 닭고기의 대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쓰다사장 일행은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본격화하기위한 사전작업으로 2~3개월내에 소매상을 중심으로한 한국계육산업 시찰단을 이끌고 재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며 2박3일간의 한국시장조사 및 수입상담을 마치고 8일 귀국길에 올랐다. ☺